

음악으로 하나 된 '더드림 패밀리오케스트라'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안성연양은 지난 4월부터 '더드림패밀리오케스트라'(이하 더드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성연양에게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함께 하는 든든한 가족이 있다. 아빠(안영민·43)는 알토 색소폰을, 동생 성찬(13)이는 플루트를 연주한다.

어느날, 아빠가 올해 여든이 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큰 누나가 쓰던 클라리넷이 있는데 저희랑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 보실래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합류했다. 온 가족이 연습할 때마다 혼자 남아 있는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할머니(최경숙·75)에게 말했다. "내가 생일 선물로 첼로를 사 줄 테니 우리랑 함께 오케스트라에 가세." 이렇게 다섯 식구는 모두 '더드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먼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던 지인을 통해 더드림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 가족은 꼭 조그마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악기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큰 행복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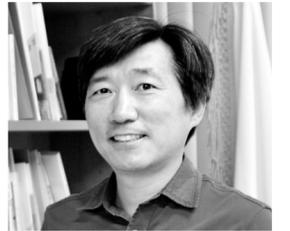
할아버지·할머니·아빠·아들·딸로 구성된 '성연이네' 창단멤버 '민섭이네' 등 34가족 111명 단원으로 활동 19일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연주회...신규단원도 모집

안영민씨는 특히 "오케스트라를 함께 하는 단원분들이 참 좋아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이곳에 와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창단 멤버인 민섭이네 가족은 음악으로 하나가 됐다. 첼로를 전공한 엄마가 먼저 오케스트라 참여를 제안했다. 민섭이는 바이올린, 아빠는 첼로 주자로 활동 중이다. 처음에 별로 마음 내키지 않았던 아빠는 지금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가장 열심이다. 음악으로 하나 된 가족들이 들려주는 연주회가 열린다. 더드림패밀리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색다르게 꾸렸다. 민섭이네, 성연이네 가족이 자신들과 오케스트라의 인연을 마음으로 선보이고 전 단원이 뮤지컬 '캣츠'의 '메모리',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을 연주한다. '더드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하나로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더드림'을 시작할 때는 정원 30명을 겨우 모을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80명이 참여했으며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는 총 34가족 111명 단원이 활동 중이다. 또 아버지, 삼촌 등 성인 남성(15명) 비율이 1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케스트라이자, 가

장 단원이 많은 가족오케스트라로 주목받았다. 이준행 지휘자를 중심으로 강사 12명이 지도를 맡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광주서구문화센터에 모여 개인별 레슨과 파트연습, 단계별 합주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더드림' 단원들은 활동을 하면서 가족처럼 친해졌다. 기본 일에 간식을 나누고, 안타까운 일에 마음을 모으며, 아버지 모임을 하고, 아이들이 또래들과 같이 어울린다고 한다. '더드림'은 매년 3월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광주 내 초·중·고학년 학생과 보호자(부모, 친척 포함)로, 가족이 2명 이상이 모여야 입단이 가능하다.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호른 등이고 개별 지침이 원칙이다. 모든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음악 수업 외 쿠키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석 무료. 초정 연주 등 문의 010-7710-45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서 콘텐츠 IT 분야 본격 출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중심에 서겠다"

이정현 원장 인터뷰



"광주에서 콘텐츠 IT 분야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그 중심에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지난달 선임된 이정현(56)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취임을 맞아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과는 다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출신이지만 학창시절 수도권으로 진학하며 타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는 지난 2004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당시 전통문화 테마 콘텐츠 구현, 창작센터 '아시아의 이야기 가공·개발' 분야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방문화산업진흥협의회 등에 참여한 이력 등을 살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개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방정부의 한계점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데 있다고 보고 지방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지방의 문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상급기관에서 이미 만들어 운영만 하라고 내려주는 사업은 지양하고 진흥원이 기획부터 설계, 스토리텔링 과정 등에 참여해 체험프로그램을 짜겠다"며 "좋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돈이 몰리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기업 유치'라는 말 대신 '기업 유인'이라는 말을 쓰도록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3가지 조건을 걸었다. 첫번째는 모든 구성원의 프로하다. 전 직원이 콘텐츠 산업에 종사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개발에 힘쓰게끔 당분간 가족하게 훈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직원들에게 동명동 카페나 총장로 등을 틀어 젊은층이 무엇을 즐기고 원하는지 조사시켰다고 한다.

두번째, 지원 기업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규모가 있는 몇몇 기업에 지원이 집중됐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소규모라도 지원을 하는 등 혜택을 받는 업체 수를 늘릴 예정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성공사례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광주시민들은 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차별되는 프로그램을 성공시켜 받은 시민들의 관심을 동력으로 삼아 발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광주는 무엇이든 시도해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조금만 지원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껍질에 구멍을 내는 마음으로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현실화시켜겠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계인산산업진흥원 사무국장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콘텐츠개발 본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진흥본부장,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7개 광역시도 음악협회 '실내악 축제'

1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실내악의 진수를 만난다. 광주예총(회장장 최규철)이 주최하고, (사)광주음악협회(회장 김유정)가 주관한 '2015 실내악 축제'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국의 6개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 교류전으로, 각 음악협회를 대표하는 음악인들을 초청해 마련했다. 대구음악협회는 현악4중주곡 드보르작의 '현악4중주 아메리카'를, 부산의 JM양상

블은 쿨리우의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대 3중주 G장조'를 선사한다. 또 제주음악협회는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작품 11'을, 울산음악협회는 보테시니의 '바이올린과 더블베이스,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듀오 콘테르타네'를 연주한다. 그밖에 인천의 셀리스트 카르렛이 들려

주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대전 뮤엔 피아노 콤비 전사하는 푸트의 '피아노 5중주 A단조'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광주음악협회는 CNS금관 5중주단(이유신·추선호·함인호·서용일·김세훈)이 에발트의 '금관5중주 1번 작품5'를 들려준다. 전석 초대 좌석예약은 15일까지 광주예총 사무처(062-528-9207)나 광주음악협회(010-2625-3144)로 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상록전시관 초대전 개최 문화예술단체 모집

광주시립미술관 오늘부터

광주시립미술관이 14일부터 상록전시관에서 초대전을 개최할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한다. 공모대상은 광주시 소재 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서예, 사진 등 문화예술단체로, 최근 3년 이내 초대됐던 단체는 제외된다. 법인 단체 및 법인 동호회 등 모두 가능하다.

공모에 선정되면 전시장 사용료 및 대관료가 면제되고 전시기간 내내 작품관리, 홍보가 지원된다. 접수는 미술관 홈페이지(artmuse.gwangju.go.kr)에서 신청서 및 전시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주말을 제외한 오는 22일까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2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13-71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랑새 호텔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